

함평군, '2022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 성료

'한국춘란, 함평에서부터 세계로'라는 주제로 개최 대상 최영욱氏... "침체된 난 산업 활기 신호탄 되길"

'한국춘란, 함평에서부터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린 '2022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이 지난 27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올해 1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온 애란인과 관람객들이 줄을 이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대표 난 축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회는 총 459점의 수준 높은 작품이 출품됐으며, 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산림청장상 등 우수작 총 156점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최영욱(서울)씨가 출품한 '황화소심(보름달)'이 이름을 올리며 1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류지호 씨가, 환경부장관상은 박래관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로 한국춘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며 "침체된 난 산업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기자



(왼쪽부터) 이상의 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최영욱 씨(대통령상 수상), 장중만 한국난연합회 회장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 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목포시가 25일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 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목포에코드림 주식회사 대표사인 ㈜한화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사업개요, 추진방식, 설계 및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 등 총 83조로 구성됐는데 대양동 70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978억원을 투입해 시설 용량 220톤/일, 소각열회수시설 6.5MW 전력 생산 시설 등을 건립하며, 공사기간은 30개월, 관리운영기간은 20년이다. 시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5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995년 위생매립장을 설치해 생활 폐기물을 매립·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위생매립장이 포화상태인 98%에 도달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대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으로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체할 대안 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목포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친환경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영광군-광주과학기술원, e-모빌리티·AI 전문인력양성 업무협약 체결

e-모빌리티 산업과 AI 융합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영광군은 지난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광주과학기술원과 e-모빌리티·AI 융합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준성 군수와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박지용 기획처장, 이흥노 인공지능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대마산단 내 산학융합시설 조성 위해 (가칭)스마트모빌리티 연구센터 및 광주과학기술원 특화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하여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포

함하고 있다.

군은 e-모빌리티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광주과학기술원은 스마트모빌리티 연구센터와 특화대학원 설립 및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영광군과 광주과학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미래형자동차핵심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5억을

확보하였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영광군은 광주과학기술원과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단지 내 연구시설을 조성하여 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을 통해 e-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 산업 분야 전문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군의 미래 전략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과 광주과학기술원의 우수한 교육·연구역량을 결합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e-모빌리티 인력양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군 '섬 수선화 축제' 취소...코로나19 확산 방지

신안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축제인 '섬 수선화 축제'를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지역민의 안전을 감안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섬 수선화 축제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지도읍 선도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섬 수선화는 2019년부터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는 작은 섬에서 마을 주민들이 마늘, 양파 대체작물로 수선화를 재배하면서 4월이면 수선화 축제를 열고, 9월이면 구근 판매로 농가

소득을 올리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신안1004섬수선화축제위원회(위원장 박기남)는 "수선화 재배단지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를 열지 못해 너무 아쉽다"며 "내년에는 전 국민이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수선화 섬 선도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영암읍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가구당 최대 900만원 지원...4월 8일까지 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접수

영암군은 영암읍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지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대해 '집수리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으로,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안전성 및 경관 개선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집수리 사업비의 90%까지 (호당 최대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10%이고 주택 외부 경관 개선(지붕, 옥상, 외벽, 대문, 담장 등)을 지원해 준다.

영암=조대호기자

신청은 4월 8일까지 영암읍 도시재생지원센터(영암읍 영무정로 14, ☎061-472-8181)에서 참여 희망자 상담 및 신청받으며, 자세한 지원기준과 절차, 구비서류 등은 영암읍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영암읍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건축전문가, 주민협의체 분과장으로 구성된 자체 집수리 선정위원회의 현장 조사, 신청서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군, 향토갯벌랜드

관광객 유치 홍보 기지개

최근 지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움츠러 있던 무안향토갯벌랜드(이하 갯벌랜드)가 새 봄맞이 준비와 전시·체험시설 정비, 홍보활동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갯벌랜드는 최근 전시 체험시설과 숙박시설 일체 대정소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정비와 보수를 통해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운영해왔다. 또한 갯벌랜드 내 해상안전체험관 응급구조물 13종과 생태갯벌과학관의 신규 어류표본 81종을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남·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567개소를 대상으로 안내자료와 홍보물을 발송해 탐사스승지 1732호와 전남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서남권 대표 관광명소인 갯벌랜드를 널리 알리기도 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